

기쿠치 온천

기쿠치 온천은 기쿠치시의 동쪽에 펼쳐져 있는 온천가로서 여덟 군데의 온천 호텔과 여관이 있으며 기쿠치 공원 가까이에 기쿠치관광협회가 있다. 각 온천 숙박시설에는 43~45℃를 유지하는 개성 넘치는 목욕탕이 있다. 온천 수질은 투명하고 거의 냄새가 없으며, pH9.0 이상의 알칼리성이다. 입욕 후의 피부는 화장수를 바른 뒤처럼 매끈거림을 느낄 수 있다. 장소에 따라서는 마실 수도 있어서 요리에 사용하는 호텔이나 여관도 있다. 당일 돌아오는 입욕도 가능하며 1,500 엔에 8 개 숙박시설 중 3 군데를 이용할 수 있는 ‘슈유켄’을 구입할 수 있다.

기쿠치시는 1950 년대에 온천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건강 증진을 위한 휴양지로서 발전해왔다. 에도 시대(1603~1867 년)에는 구주산의 서쪽, 현재의 구마모토현과 오이타현을 잇는 가도 주변의 마지막 주요 도시로서 상업이 번영했다. 이 번영은 태평양전쟁 이후까지 계속되어 구마모토현 전 지역에서 기쿠치 지역의 상점가로 손님이 찾아와 온천가도 발전했다.